

함께

겨울 2012

· 특집 ·

이웃과 마주보기

자발적 불편운동을 아시나요?



Contents



COVER STORY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은 설렌다. 반짝이는 트리와 즐거운 캐롤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린다.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 모습을 보겠다면 졸린 눈을 부비다 결국은 잠에 들지만, 성탄절 아침 긴 양말에 담긴 선물은 착한 어린이임을 확인 받는 순간이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의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순수했던 어린 아이의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어떨까?

메리 크리스마스^^

2012 겨울

- 목양실 러브레터 4
- 특집 1 〈이웃과 마주보기〉 8
- 특집 2 〈자발적 불편운동을 아시나요?〉 16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남2-2 목장탐방 24
 - 나의 삶, 나의 신앙 28
 - 멀리 멀리 갔어도 32
 - 시온 성가대를 찾아서 36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창조과학전시관을 찾아서 40

우리 옆의 북카페 44

한남대학교 기독동아리 48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52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58

사모의 글 60

이런 일 저런 일 62

'함께'지 새 얼굴 66

내 숨씨 우리 가족 67



심유진(유년부. 3)



함께8호_2012 겨울

발행일 | 2012년 12월 22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인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신신혜, 노상미
차문현, 박헌정

디자인 | 박나래

발행부서 | 문서홍보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 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당신은 지금 몇 살인가?

글 · 조상용 담임목사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일 2:14

사도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3가지 호칭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버지들아!”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를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 영적인 나이를 구분한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연령과 영적인 연령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각 신앙의 단계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자의 영적 연령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아이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영적 유년기에 해당하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 받은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청년들

이들의 특징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유년기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매력은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신앙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비들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이 쌓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속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간증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들을 양육하고, 청년들을 이끌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 연령은 몇 살입니까?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열매를 맺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영적 부모의 단계에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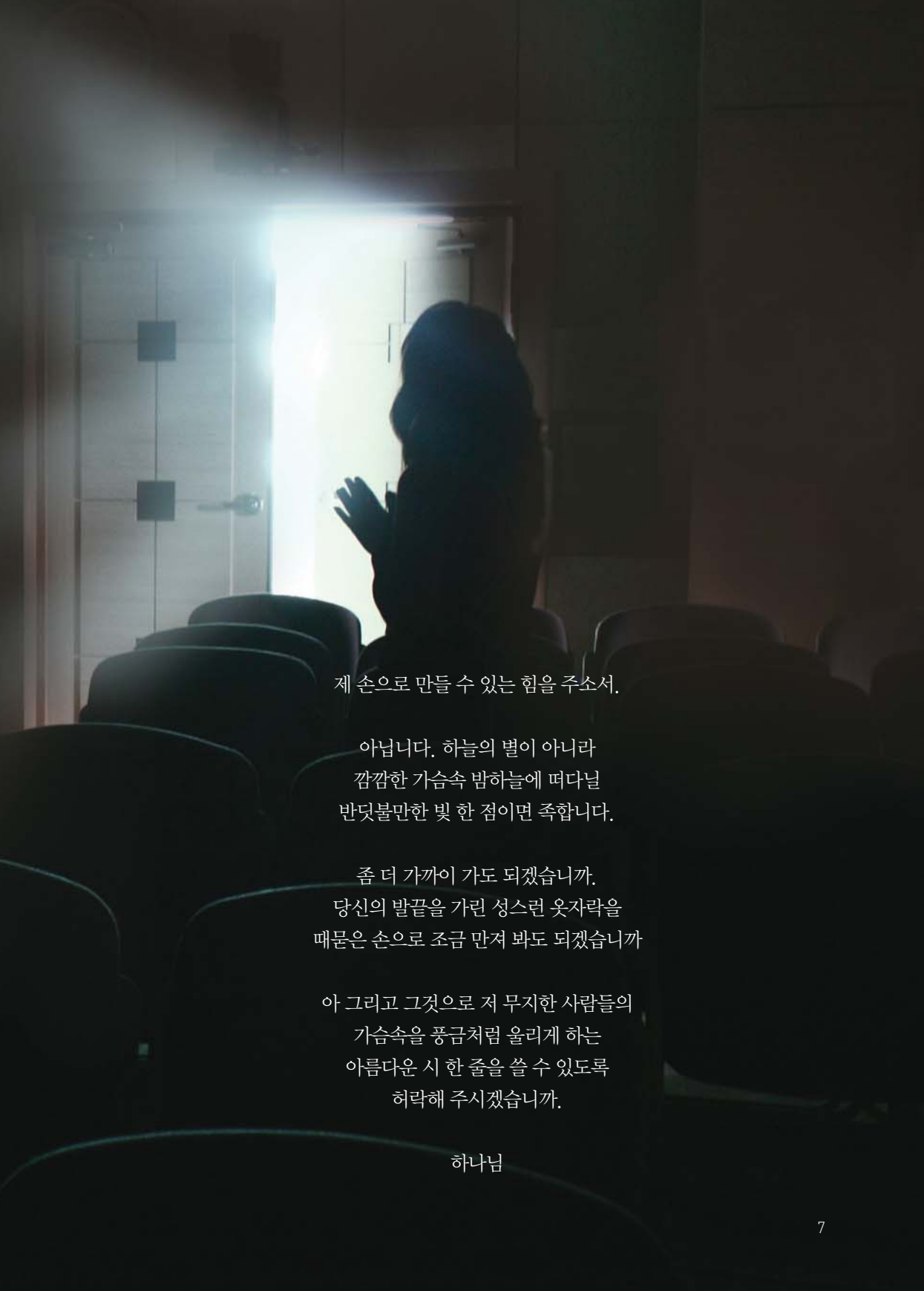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A person is seen from behind, standing in a dark room and reaching out their hand towards a bright, glowing doorway. The room is filled with rows of dark chairs, suggesting a church or a formal gathering. The light from the doorway creates a strong contrast with the surrounding darkness.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런 옷자락을
때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이웃으로, 이웃은 교회로

이웃을 향한 교회 사역 돌아보기

글 · 심재성 기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열린 구조로서의 교회를 만드는 일도 무엇보다 우선 실현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에 현재 많은 교회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에서 예외가 아니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 교회의 4대 사명 중 하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이고, 8대 사역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이번 ‘함께’지에서는 이러한 사명과 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다양한 활동들과 이웃 사랑의 실천 현장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이웃과 함께 배워요 | 교육



청춘 대학

청춘대학은 2009년 가을부터 실버대학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역이다. 올해부터는 마음만은 언제나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이는 만큼 그 이름을 청춘대학



으로 바꾸고 더욱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청춘대학은 6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4년간 8학기 동안의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건강관리라든지 취미활동을 위한 특강과 교육을 실시한다. 이웃 주민들에게 언제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청춘대학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현실에도 꼭 필요한 사역이며,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기학교

아기학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사와 봉사자들이 알찬 교육과정을 펼치는 사역이다. 아기학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기학교는 신앙을 가진 교우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여를 희망하는 이웃의 모든 자녀들도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웃의 젊은 엄



마와 아기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기학교는 총 12주 과정으로 1년간 2기가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맞춘 다양한 신체활동, 캠프활동, 창작활동, 야외활동 등이 체계적으로 짜여있어 참여하는 아이들은 물론 함께한 엄마들까지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웃과 함께 즐겨요 | 문화

카페 필그림하우스 운영

카페 필그림하우스는 3년 전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을 보인 교회의 얼굴이다. 2009년 문을 연 이후 필그림하우스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물론이고 이웃의 주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교제와 나눔의 공간이 되었다.

필그림하우스가 이웃으로부터 사랑받는 첫 번째 이유는 맛난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전문점의 커피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유명 전문점에서는 커피 한 잔 값이 한 끼 식사비에 버금가기도 한다. 하지만 필그림하우스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 밖에 하지 않는다. 물론 가격이 싸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필그림하우스 커피의 맛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다.

두 번째 이유는 카페 봉사자들의 친절함 때문이다. 필그림하우스의 모든 바리스타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섬기고 있다. 개인적인 일들을 제쳐두고 봉사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필그림하우스의 모든 봉사자들은 헌신과 친절함으로 우리 이웃과 교회를 잇는 축복의 통



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카페 운영의 목적은 이렇게 나눔과 섬일뿐더러 카페 운영의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과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향이 커피 한 잔과 함께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선교바자회 · 새생명축제 · 음악회 등

매년 5월 중에 교회에서 여는 선교바자회는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장이다. 선교바자회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먹을 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이웃의 주민들도 누구도 함께 참여해 어울릴 수 있는 흥겨운 장터가 이들간 펼쳐지는 것이다. 준비하는 기간과 바자회 기간 동안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은 행사이다. 바자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은 전액 선교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0월 중에 열리는 새생명축제 또한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이다. 새생명축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물론 전도를 통한 새생명의 구원이지만 행사 당일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세시봉 가수로 유명한 윤형주 장로를 강사로 초

빙하여 이웃 주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감상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음악회나 연주회 등을 여는 것도 모두 이웃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함께’지 발간

지난 2010년 봄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 8호까지 나오게 된 교회지 ‘함께’는 그 시작부터 이웃과의 소통을 창간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웃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함께’지는 우리 이웃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자 했다. 우리 교회와 인접한 가양동, 비래동, 송촌동 등 지역을 찾아갔고, 신도시장의 상인과 상점, 인근의 꽃집과 미용실, 구두수선실 등을 찾아갔으며, 봉사단체나 소모임 동아리를 찾아갔고, 여러 기독교다리를 찾아갔다.

이를 통해 이웃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이웃들에게 이 책을 전함으로써 ‘함께’지를 통해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취재하며 만났던 신도시장의 한 상인은 전도사님이 전해오는 ‘함께’지를 꼭 읽어보며 이웃들에게도 권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함께’지가 이웃과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함께’지와 함께하고 ‘함께’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웃과 함께 나눠요 | 봉사

베데스다

베데스다 사역은 우리 교회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사역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베데스다 사역은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의 사역 중 그 역사가 가



장 오래된 사역의 하나이다.

현재 100명 안팎의 인원이 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차비와 간식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드리고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 베데스다 사역은 지금도 열심히 진행 중이다.

효도 관광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한 번 우리 교회의 어르신과 이웃의 어르신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온다. 효도 관광은 남녀 전도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후원하여 맛있는 음식과 알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이웃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이 계속되어야겠다.

김장 나누기 · 쌀 나누기

연말이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또는 쌀 나누기 행사를 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2000포기 이상의 김장을 전교인이 함께 담아 이웃의 독거노인 등에게 나누어드렸다.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원해 드릴 가정을 미리 선정하고 날을 정하여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하여 김장을 나누어드렸다. 지난해 기자도 함께 참여했었는데 김장을 받아드는 분들이 아주 반가워하시며 고마움을 표했던 기억이 있다. 올해에는 쌀 나누기 행사로 대치했는데 김장나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여 집집마다 쌀을 전해 드렸다.

이처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이웃을 마주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고 기울이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성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칫 구호와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량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웃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어야 하리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갈 때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결과이자 목표여야 할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가득 넘치기를 기도한다.

[특집] 자발적 불편운동을 아시나요?

제1인! 자발적 불편운동을 통한 이웃과 함께하기

글 · 편집부



커피를 마십니다.

우리 생활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 식품이 아니라 생활 문화이며 소통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사색의 동반자이며 부부가 마주 앉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커피 마시기 중에서 한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바로 커피잔입니다. 요즘에 커피잔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종이컵으로 커피를 내 줍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실 것도 아닌데 종이컵에 담아서 먹고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사실 맛은 머그컵에 담아 먹는 것이 좋은데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었을까요? 나무를 잘랐을 겁니다. 펄프로 재생해서 가공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유해 물질도 묻었을 것입니다. 재료를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석유가 낭비되고 도로를 점유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매립지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 이렇게 복잡한 낭비의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머그컵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자발적 불편운동을 아시나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펼치는 운동인데 크리스찬이 스스로 불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이웃을 회복시키자는 운동입니다. 스스로 불편해 지자고 하니 마음부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보람으로 채워질 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살아가는 희망과 열정을 얻게 됩니다. 보람 있는 행동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재생산 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불편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의 불편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말입니다. 훨씬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이 옳다면 해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 자발적 불편운동을 소개합니다. 우선 세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자발적 불편운동의 사례와 꼭 공유해야 할 좋은 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전중부교회하면 “스스로 불편하게 사는 크리스찬!”이라고 떠 올리도록 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웃과 약자를 위한 자발적불편운동

글 · 손봉호 자문위원장(기윤실, 고신대 석좌교수)



우리사회는 법질서와 윤리의식이 부족합니다. 질서를 이야기 할 때 약육강식을 막기 위해서 도덕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약육강식이 됩니까?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질서가 없어지면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교통질서가 깨지면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만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사람, 노인들, 자전거 타는 사람은 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통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질서, 윤리 이쪽은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개발지수는 세계에서 15번째인데 투명지수는 43번째입니다. 이것은 32위인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 못한 것입니다. 투명지수를 부패인식지수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최근에 부패가 늘었다고 하는데 52.6%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4.1%에서 56.7%로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부패해질 것이란 질문에는 17%에서 27.3%로 상승했습니다. 다른 데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부패에 있어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24위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못살게 돕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는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 이로다”

배경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대가로 사례를 받아 생활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도 그럴 수 있고, 성경도 그리하라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고 바울도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기는 얼마든지 사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자발적불편운동’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입니까? 이웃을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 세상의 오늘 논리와 완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 잘되려고 사는데,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지하철 탈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런 시설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적게 타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시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할 겁니다. 저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자 할 겁니다. 자연스레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권한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비도덕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운동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자는 운동해야 합니다. 좀 미친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좀 미친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내용은 2012년 전국기윤실수련회 개최예배 설교를 녹취·요약한 것입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을 시작합시다

글 · 신동식 목사(빛과 소금교회, 기윤실 정직윤리운동 본부장)

국가적 위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지구촌에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 영원히 호령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보스포럼에서 자본주의는 죽었다는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 된다면 수출로 경제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IMF시대가 올 것이고 그 강도는 이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의 생명의 깃발이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어느 분야에서라도 한국 교회는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삶의 형식은 교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16%의 사람만이 교회를 신뢰하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거나, 철저한 이원론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스

스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손해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접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의 현장은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섬김의 자리에 서신 것이 바로 자발적 불편입니다.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불편은 자발적 가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불편과 자발적 가난의 삶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불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공상맞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 불편의 삶은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가 없이 자신이 존재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불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웃 즉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발적으로 불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자발적 불편을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불편운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글 · 방선기 이사(직장사역연구소장)



자발적 불편 운동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검약운동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발적 불편 운동을 펼쳐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수하기 힘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도 전기기구 사용에 대해서는 불편을 감수하기 쉬운 사람이 자동차 사용을 포기하기는 힘들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기 쉬운 부분만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둘째로 그렇게 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도 있다.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꼭 힘든 일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고 하다보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수동식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다들 나를 보고 힘들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물론 자동변속 자동차와 비교하면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동을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수동 자동차를 권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수동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물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즐거워질 수 있다면 이 운동은 정말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몸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단계적이다. 조금씩 편한 것에 익숙해지다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이는“편안의 덫(Comfort Trap)”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한 번 그 덫에 걸리면 여간해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큰 불편도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로 자발적 불편운동은 신앙인들에게는 윤리적인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은 것이다. 경건훈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몸의 불편을 감수하는 훈련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금식 기도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불편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절제 훈련의 하나로서 불편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남 2-2 목장탐방

알콩 달콩 재미있는 남자들의 공동체

글 · 조재란 기자





(왼쪽부터 시계방향) 눈웃음이 해맑은 남자 2-2 목장의 선한 목자 **유창웅 집사님**,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 예비목자 **최용필 집사님**,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시고 유머있는 말솜씨로 분위기를 띄우는 **인치경 집사님**, 폴리텍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김영채 집사님**, 당신의 집을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숙소와 컴퓨터로 가까이 내어 드린 **류재은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최근 가족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신 **김갑식 성도님**.

별빛이 하나 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늦은 저녁 8시. 대부분의 남자목장이 목장모임을 하는 그 시간, 남자 2-2 목장도 만남이 이뤄진다.

취재를 간 날은 유창웅 집사님, 김영채 집사님, 류재은 집사님, 인치경 집사님, 최용필 집사님 그리고 새로이 목원으로 영입(?)하고자 처음 모임에 참석한 김갑식 성도님. 이렇게 여섯 분이 모이셨다.

전도를 주제로 나눔을 하셨는데 유창웅 집사님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었고 류재은 집사님은 초등부 교사로 학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으셨으며, 김영채 집사님은 시골에 계신 아버님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도대상이었다. 인치경 집사님은 부모님을 최용필 집사님은 처남들과 직장동료 등 주변의 지인들이 전도대상자였고 그날 목장모임에 처음 참석한 김갑식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전도대상자라며 농담처럼 웃으며 얘기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기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속히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분이 계심을



확신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현재의 역경을 헤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많은 청년들을 전도하신 김영채 집사님과 고등부 부장으로 헌신하신 인치경 집사님께서서는 부모님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랜 세월을 살아 온 그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세상의 이념과 유교적인 삶들로 돌같이 굳어져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프다고 하셨다.

한 시간 이상의 대화 끝에 전도란 무엇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남자 2-2목장의 나눔에 대한 결론들이 나왔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전도의 방법으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입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고 풍성한 사랑인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그 향기에 취해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는 다짐과 함께 마침 기도를 하고 목장모임을 정리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날은 목원들이 서로 염색을 해주기로 하여 김갑식 성



도님이 천연성분이 들어간 염색약이라 피부나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염색약과 염색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왔다.

오늘의 염색시연 모델은 인치경 집사님이셨다. 이 삼십 여분의 시간이 흐른 뒤 모델 집사님께서 염색약을 행구어 내고 머리를 감고 욕실에서 나오시는 순간 모두들 일어서서 인치경 집사님의 머리카락도 만져보시고 박수도 치시고, 십 년은 젊어 보이신다고 환호성이다. 인치경 집사님도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고 정말 훨씬 젊어 보이셨다.

남자2-2목장! 정말 알콩달콩 재밌는 목장이었다.

교회에서 보이는 이미지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분들이었다. 모두들 생업으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며 작은 이벤트에도 환호하고 기뻐하며 하나 되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남자 2-2 목장! 거룩하면서도 참 순수하며 살짝 귀엽기까지 한 남자 분들이셨다. 교회 곳곳을 살펴보면 이런 목장, 이런 공동체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럽고 든든해 보인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참 푸근하고 따뜻했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나의 삶, 나의 신앙

자물쇠보다 복잡한 삶을
아름답게 열어 가는
열쇠부부
이야기

글 · 김용수 기자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존경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공손하게 맞절하는 부부가 있다. 매일 그렇게 한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하는 맞절에서 집안이 따뜻해 진다. 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따뜻함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보통 가정이 가장 따뜻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외로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한 가정이 많다. 한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요소는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이다. 김수종, 김영자 부부는 공감대가 같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다 이웃을 전도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항상 열린 가정을 만들어서 이웃이 쉽게 드나 들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우리 집을 드나 드시는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남편 김수종 집사님보다 4년 연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김수종 집사님은 김영자 집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해(18세 되던 해의 12월)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당시 서울 봉천동에 자신의 자그마한 가게를 처음 열어 청년 사장이 된 김수종 집사님의 가게로 김영자 집사님이 50원 짜리 머리핀을 사러 오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도대상자로 성실한 청년 사장님을 마음에 두고, 교회의 행사에 초청하는 손길을 내밀었을 때, 청년 사장님은 선뜻 인도자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를 출석하였고, 아주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다지게 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세가 되었을 때, 김수종 집사님은 신앙의 멘토이자 현숙한 여인인 김영자 집사님을 신부로 맞게 된다. 처음에는 김영자 집사님을 아내로 맞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이내 두 분은 평생 신앙의 동지요 조력자로 살게 된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묵묵히, 성실히 이겨내고 살아온 김수종 집사님. 12세의 어린 나이에 객지로 나와 고되고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께 대한 효성과 성실함으로 모진 어려움을 이겨냈다. 여러 사업을 전전하시던 중, 5년 전부터 지금의 열쇠가게를 하고 계신다. 언제라도 집사님을 찾는 요청이 있으면 달려가신다. 한 겨울 새벽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을 맡아서 하실 때에는 최대한 배려하고 요구사항을 들어 준다. 열쇠로 인해서 애태우는 분을 위한 배려이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전도 대상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고야 한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언제나 열어 초청하고 정성껏 대접한다. 아파트 벽으로 둘러싸인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이웃이 되는 것이다.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를 기반으로 전도를 이어 나가는 것이다.

두 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미교, 순교, 선교로 모두 출가하여 신앙의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할 때에는 많은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 모두 사랑 받는 며느리이며,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린 나이부터 홀로 독립하여 생활 했고, 배움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의 마음 속에는 부모와 사회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다른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두 분의 같은 이야기이다.

얼마 전, 동부시의버스터미널에서 만물상 가게를 할 때 아시게 된 부부에게 행부세(행복한 부부 세미나)을 소개하게 되었다. 소개 받으신 부부는 생각 이상 기쁜 마음으로 행부세에 등록하고 과정을 이수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이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으나, 최근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시간을 내시지 못하신다. 자연히 교회도 출석을 잘 하시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은 너무 마음을 아파하신다. 빨리 시간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되어서,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망이다.

두 분의 간절한 소망이 가을 하늘보다 맑고, 국화 향기보다 진하다. 자물쇠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열쇠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부가 되실 것을 믿으며 축복한다.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멀리멀리 갔어도

멀리서도 만남과 만남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

글 · 이의주 자매(늘푸른청년회)



저는 지난 2월 28일, 호텔 인턴십을 위해 학교 선배들과 함께 이 곳 미국 텍사스 주의 샌 안토니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미국에서 9번째로 큰 도시로, 여러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의 한 호텔에서 인턴십으로 다양한 일을 하며 경험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되지만, 매일 매일이 새롭고 즐겁기도 합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습니다. 차가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물조차 사서 마실 수가 없었고, 호텔 측에서는 일주일간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40도를 가뿐히 넘나드는 날씨에 적응이 되지를 않았고, 영어로 한 마디 하는 것조차 자신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마음 한인 교회 성도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마음 한인 교회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십 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세영 목사님의 말씀 인도 아래 200여 분의 성도 분들이 가족처럼 섬기고 계십니다. 남편이 미국인, 부인이 한국인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세영 목사님





께서는 우리말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청년부 학생들이 동시통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목사님은 항상 뜨겁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가 끝난 후엔 항상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인사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게 세셨는데, 목사님께서 교회 재건축을 위해 기도하시던 때에, 까맣던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버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모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교회의 행사가 있는 날이면 많은 성도 분들이 모여 다 같이 힘써 돕고 교제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도 레베카라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저희 호텔에서 계약직으로 가끔씩 일하는 직원인데, 8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다고 합니다. 한국말은 잊어버렸지만, 마음 속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베카는 호텔 식당에서 처음 본 저희를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그 날부터 바로 저희의 미국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을 때인데도, 레베카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자신에게 딸들을 보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레베카는 정말 친엄
마처럼 많은 일을 도와주고,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줍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호텔 일은 너무나 힘들었고, 호
텔 측에서 저희에게 약속해주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 고위 직원
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와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제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
건 주님은 저를 항상 지켜보시며 제 길을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은 항상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눈물겹
게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귀국까지 100여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저
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100일을 위해,
제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인턴십을 끝까지 담대하게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립니다.

특별한 성가대, 더 특별한 행복

글 · 한일민 집사(시온성가대 지휘자)

“아니, 새벽예배에 성가대가 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몇 명이나 모여요?” “많을 땐 서른 명 가까이 되요.” “예?,
우리 교회 낮 예배 성가대 보다도 많이 모이네요.”

직장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시온성가대 얘기를 하게 되었다. 새벽예배에 성가대가 모이는 교회가 흔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시온성가대 얘기를 하면 성가대가 모인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고 다음으로는 대원 숫자가 제법 많은 것에 놀라곤 한다.

새벽에 성가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고충이 따르는 일이다. 첫째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4시 30분

시온성가대 지휘자 한일민 집사



에 성가 연습 시각에 도착하려면 그 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새벽에는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아침 성가대도 소리를 제대로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려면 목이 풀리는 낮부터 가능한데 일어나자마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셋째 어려움은 연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벽에 더 일찍 모여서 연습하기도 쉽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예배 후 연습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눈치로 박자를 맞추고 느낌으로 음을 잡을 때가 많다. 우리 성가대는 실전에 강해서 그런지 불안하던 연습 때와는 달리 예배 찬송에서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벽에 시온 성가대로 모이는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주일 새벽을 찬송으로 여는 벅찬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 새벽을 기다리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이다. 나 역시 몸은 힘들지만 이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시온성가대 지휘를 부탁 받았을 때에는 새벽 성가대라는 부담도 컸지만, 음악을



시온성가대 대장 유정화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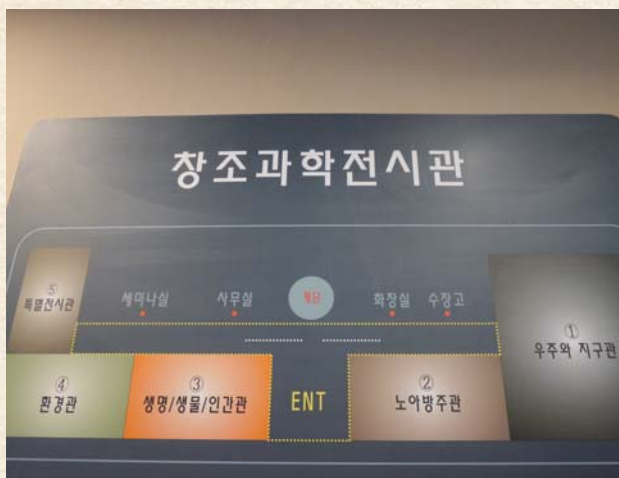
제대로 전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성가대를 이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성가대 활동도 많이 하였지만 성가대를 지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일 것이다. 그런 부담 때문에 쉽게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없었다. 그 무렵 나는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또 그것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성가대라는 통로를 통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 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인도 하심에 이끌리어, 그리고 기회를 잘 붙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임헌성 집사님에 이어서 올해는 유정화 권사님이 시온성가대 대장 일을 맡아서 이끌고 계신다. 남들이 알아 주지도 않고, 맡아서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라 그런지 수 년째 한 집안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권사님은 언제나 연습이 끝나면 반주자와 지휘자 가운데 손을 얹혀 주신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다.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종운 형제는 우리 성가대 평균 연령을 한참 낮춰주고 있다. 자도 자도 잠이 모자랄 때인데 매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반주를 할 때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새벽 예배 뿐 아니라 주일 1부 예배 반주까지 큰 키처럼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못지 않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신앙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삶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총무를 맡은 서영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거의 매주 빠짐없이 젊은이 못지 않은 찬양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뵈고 같이 호흡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값비싼 인생교과서를 읽는 것과 같다. 이런 특별한 성가대를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시온 성가대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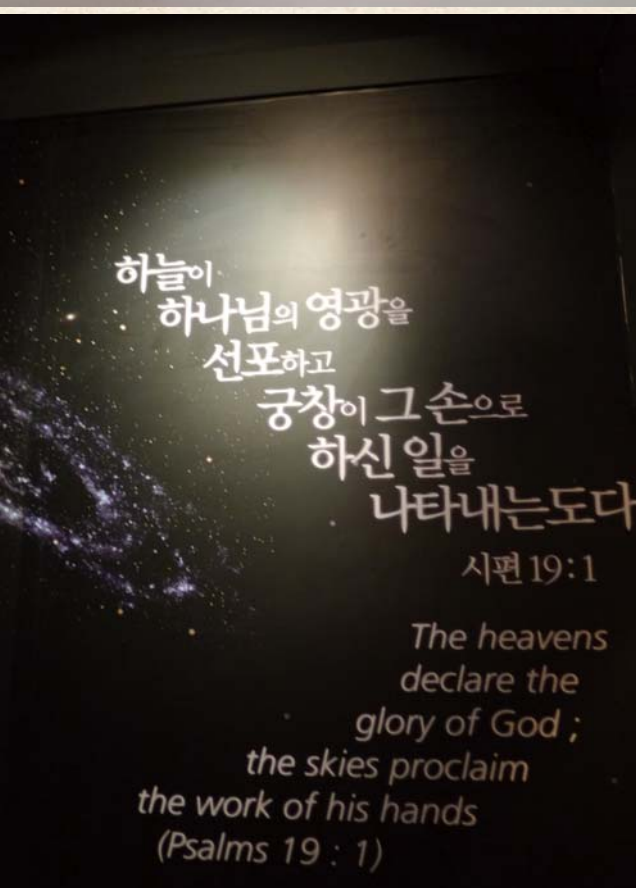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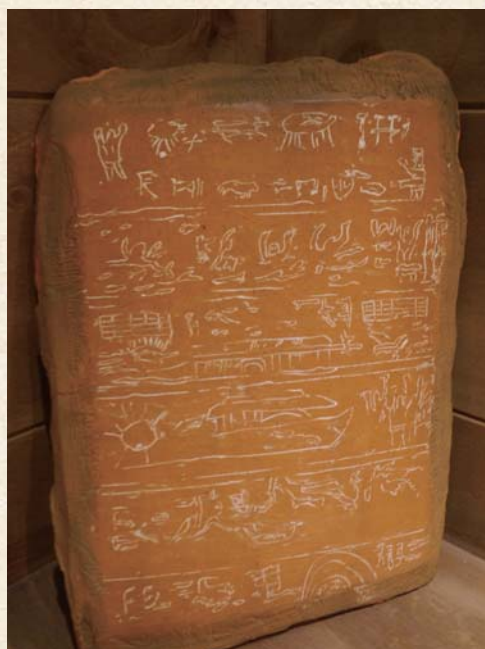
과학은 우리 삶을 이롭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친밀한 대상은 아니다. 과학은 복잡한 기호들로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려 하고, 철두철미하게 법칙을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관용이란 없을 것만 같아 보인다. 자못 인간미 없어 보인다. 이렇게 차갑고 도도하기만 했던 과학에게는 작별을 고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부터 따뜻한 과학이 있는 창조과학전시관을 소개하려 한다.

창조과학전시관은 대전에서 영적전쟁이 치열한 곳들 중 하나인 용문역 부근, 대전순복음교회에 자리 잡고 있다. 수침교를 지나 용문역을 향할 때면 신천지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흘려보기에 바빠 이곳은 쉽게 눈길이 가지 않는 곳이다.

창조과학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므로 전혀 낯설지 않다. 진화론이 논리적, 이성적이고 창조론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일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전자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창조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창조과학과 관련된 도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서적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갈릴레이, 뉴턴, 파스칼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글귀들이 함께 있다.

넓지 않은 전시관은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 전시실들로 오밀조밀 구성되어 있다. 다양



한 주제의 전시실들을 차례대로 둘러보면, 고개를 갸우뚱 할 일도, 끄덕일 일도, 절레절레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 과학시간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성경을 통해 배웠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다. 한번 쯤 그러한 의문을 품었거나 고민했던 사람은 빨리 창조과학전시관을 방문하길 바란다.



‘생명관’을 통해 위의 고민들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었지만, 가장 친근했던 전시실은 역시나 ‘노아의 방주관’이었다. 전래동화처럼 엄마 무릎을 베고 들었던 그 신기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의 일부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외에도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궁금증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가끔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필요로 하여 어려울 수도 있어서, 따뜻한 과학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창조 과학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이내 마음은 따뜻해질 것이다.

학교에서 인체에 대해 공부를 하며 느꼈던 것은 너무나도 복잡한 사람이 우연에 의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군가가 계획을 갖고 빚어낸 것이 아닌, 우연의 연속적 결과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 분의 일하심과 사랑,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과학을 작지만 알찬 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대감 없이 함께 동행한 친구는, “적당히 밥 때우려고 들어간 작고 허름한 식당이 미술랭 가이드에 실릴 만한 맛집이었네.”라는 말을 덧붙여주었다.

이제 수침교를 지날 때는 보다 선한 것에 집중해야겠다. 창조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창조과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따뜻한 과학이 있는 창조과학전시관을 방문해보자.

덧붙이는 말

- 자료에 대한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주일과 월요일은 휴관일이예요.
- 오전10시와 오후2시에는 안내자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 가시기 전에 참고하세요.
- 홈페이지 <http://www.tjkacr.or.kr/>

성은교회 북카페 ‘그냥 좋아요’

글 · 박현정 기자



‘그냥 좋아요!’

좋은데 이유가 있나? 그냥 좋은 거지!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좋아서 자꾸만 발길이 가는 그런 곳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나,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도 그냥 좋아지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긴

곳.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바람에는 웬지 동네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피해 책 한권을 조용히 읽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천에 옮기기에 더 없이 적당할 것 같은 곳을 찾아갔다. 바로 성은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그냥 좋아요’다.

‘그냥 좋아요’는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한울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성은감리교회를 찾아가면 1층에 위치한 북카페를 찾을 수 있다. 아



기자기한 글씨체가 쓰여진 나무 간판이 있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환한 인사로 맞아주셨다. 집사님께 취재 의도를 설명해드리고, 목사님과 담당 전도사님의 허락을 구한 후에 본격적으로 북카페 탐방을 시작하였다.

우선 북카페를 들어가는 순간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던 분은 오늘 봉사자로 섬기고 계신 집사님이셨다. 매일 다른 분들이 자원을 하셔서 카페 봉사자로 섬겨주시고 계신데, 북카페의 특성상 카페 담당과 도서 담당을 나누고 계셨다. 봉사하시는 집사님께 여쭙보았다.

“이렇게 본인 시간을 할애하셔서 정해진 시간마다 봉사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가요?”

“어우, 저는 할애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봉사하러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쩐 이 공간을 채우고 계신 분의 마음이 카페 이름 같을까? 감사하게도 자원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카페 관리와 도서 관리를 나누어 각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 북카페의 특성이 더 잘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서관리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한 눈으로 보기에 북카페는 꽤 많은 책들로 그 공간이 채워져 있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책들은 북카페를 오픈하며 구입한 책들과 교인들이 기증한 것들이라고 한다. 북카페의 책들은 실제 도서관에 온 것처럼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고, 나이별 관심별로 찾을 수 있게 어린이 도서, 청소년 도서, 신간도서 등의 세부 항목들로 정리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 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공



간을 꽉꽉 채우고 있다니 어느 도서관 못지않다. 이런 도서관의 책들이 심심하지 않게 취재 중에도 카페에는 꽤 많은 자리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평소 교인 분들이 몇몇 모여서 무언가를 배울 때는 교실의 역할, 모임 장소의 역할 등 교회 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간임은 물론이며, 아직은 지역주민보다는 교인들의 이용률이 높지만 차츰 지역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 앞이라서 그런지 학교

길에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와서 책을 읽기도 한단다. 무엇보다 '그냥 좋아요'는 모든 책의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도서관처럼 회원가입을 하고 한 번에 3권씩 보름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기능이 있기에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체계적인 도서관 시스템까지 적용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 신기하고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계신 집사님께 한번 더 여쭙보았다.





“특별히 카페에 봉사하고 계시면 카페에 가지고 있는 애착이 더 크실 텐데요. 앞으로 이 북카페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성장했으면 하시나요?”

“일단 여기는 북카페니까 원래 취지대로 도서관의 역할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초,중,고 학생들도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이 책들이 다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지역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홍보해야죠.” 교회와 교인을 위한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속의 공간을 꿈꾸는 이런 봉사자분들과 자신들이 책을 통해 느꼈던 그 따뜻함을 나누려는 교인들의 마음이 합쳐졌기에 북카페 ‘그냥 좋아요’가 탄생되고,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한 번 북카페에 들려보자. 그냥 가도 좋아질 수 있는 곳이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방문에도 너무나 따뜻하게 초보 기사를 맞아주셨던 성은 감리교회 ‘박미향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 TEL 042) 673-8679

■ OPEN 10:30~17:00 | CLOSE 매주 월요일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한남대학교 기독교동아리 탐방

한남대 CCC와의 만남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 세우기

글 · 이지은 CCC 간사(늘푸른 청년회)



오정동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는 1954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해 [기독교 선교 대학]으로 설립이 추진되어, 1956년 4년제 [대전기독교학관]으로 개교한 대학이다. 기독교 정신 아래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서 한남대학교에는 DFC(제자들선교회), IVF(한국 기독교학생회), JDM(예수제자운동), KABS(기독교영어동아리) 등 많은 기독교학생동아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 중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한남대학교 CCC'(Campus Crusade for Christ)를 찾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 자매로부터 동아리의 활동상과 비전을 전해 들었다. '한남대 CCC'는 1992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한남대기독교학생동아리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남대 CCC의 모임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간사(캠퍼스선교사)3명, 대표단 6명, 기능 팀장 6명 그 외 순장 및 순원들 40여명이 있으며 동아리방은 한남대 학생회관 3층에 있습니다.



한남대 CCC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QT로 아침을 열고, 목요일 아침은 한남대 모든 선교단체와 함께 캠퍼스를 위한 기도모임을, 금요일 아침에는 가족 순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7개의 가족 순모임은 형제순과 자매순을 한 순씩을 모아 8~15명 정도의 가족순을 이루어 함께 토론식 성경공부를 하고 교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에서 9시까지 캠퍼스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40여명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학년별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2학기에는 학년별 모임시간에 Grow-DIP이라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전도와 제자화에 헌신하며, 세상 가운데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30분까지 선화동 회관에서 모여 지구채플을 통해



대전의 13개의 캠퍼스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후 한남대는 캠퍼스로 돌아와 11:00-12:30까지 철야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외에도 5개의 사랑방(공동체생활), 한남대 축구부 등의 다양한 사역이 있으며 매 학기마다 순여행, LTC(사영리전도와 제자화교육), 여름(전국)/겨울(금식) 수련회, 거지순례전도, 도시전도, 해외 단기선교 등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남대 CCC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남대 56개 모든 학과에 순모임이 일어나고 하동영제(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대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캠퍼스와 커뮤니티에서 리더들을 세워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의 약속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초록우산을 펼치면
세상이 사랑으로 밝아집니다.

글 · 노상미 기자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호랑이가 장가가나 봅니다. 우리는 어릴 적 해가 떠있는 하늘에 빗방울이 보이면 ‘호랑이’를 매번 장가보냈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 일지라도 장가를 가면 순해졌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호랑이’가 없는 하늘에서 해학을 찾을 수 있을까요?

12월, 따뜻한 <우산>을 만나다.

오늘도 하늘에서는 겨울비가 내립니다. 다행인지 아이들은 스케치북 위에 눈싸움을 즐겨 그리고 이글루 만들기 겨울 프로젝트를 기대합니다. 내가 만난 첫 ‘초록우산’은 컬러 워크샵에서입니다. 봉봉한 초록색 우산을 보는 순간, 20대 때 만난 적 있었던 모 PD의 짝막한 엽서가 생각났습니다. “머리 위에 씌워진 우산을 접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세요.” 힘겨웠던 한 시절을 위로해주던 상징적인 우산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우산’을 올 해에도 만났습니다.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어린이재단인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입니다.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어린이재단인 <초록우산>의 사명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맑고 밝게 자라서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재단은 60여 년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초록우산>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창적인 후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선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매년 공인된 회계법인을 통해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인류애를 실천하는 국제적인 아동복지기관입니다.

더 나아가 <초록우산>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회원기관으로 연맹기관과 함께 전 세계 53개국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의료서비스, 교육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종, 종교, 성별, 국적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저소득가정 아동과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힘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사랑의 리퀘스트 '희망의 집짓기'등 주거안정지원도 진행하며 학업, 예능, 체육, 기능분야 인재양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초록우산>내의 대전아동가족상담센터 또한 1998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발달, 정서, 인지, 학습,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고 더불어 그 가족들에게도 치료와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교육적 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이나 문화, 복지, 보호, 교육프로그램도 방과후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중점사업, 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

요즘 <초록우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은 바로 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입니다. CAP 교육 진행순서(교사→부모→아동)는 아동이 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을 배운 후 가정과 학교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AP는 아동의 안전하고, 씩씩하고, 자유로울 권리 증진과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역할극과 호신술(7가지)을 포함한 권리교육이 있으며, 리뷰타임(1:1 이야기 시간)을 통해 워크숍



내용의 복습과 내용강화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이 접수되면 어린이재단 CAP센터에서 강사가 파견된다고 합니다. 대전지역아이들이 아동폭력예방프로그램을 통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희망장난감 도서관

올해로 개관 1주년을 맞이한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장난감 및 놀이 교구를 대여도 해주는 바람직한 놀이공간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 덕분에 자유놀이 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Play World’, 천연비누 만들기, 구연동화, 아동미술, 뮤직가튼, 부모교육, 성탄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카페, 〈초록우산〉 도서관

초록우산도서관은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북카페입니다.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아담한 꿈의 공간입니다. 후원으로 채워진 도서관은 앞으로도 많은 도서 기증과 프로그램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대덕구와 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덕사랑, 아이사랑”은 대덕구 빈곤아동 100명을 후원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1인 월10만원을 지원목표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지원 및 인재양성지원금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스토리 <초록우산> 속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사시를 가지고 태어난 9살 경태... 왼쪽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물건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 얼마 전에는 벽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후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 당뇨합병증과 하지정맥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경태에게는 버거운 현실일 뿐입니다. 대덕구와 어린이재단은 경태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 해주실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나 후원을 원하실 때는 042-627-2957
- www.childfund-daejeon.or.kr



창문 밖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고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맑아진 어느 날에는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 <초록우산>으로 오세요.
우리의 사랑기운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전의 유일한 어린이 재단인 대전종합사회복지재단,
 <초록우산> 유미 관장님을 만나다.

응두동에서 시작된 본 재단은 1983년에 비래동으로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미 관장님은 29년째 어린이 재단을 위해 한마음을 고수하시고 계시며, 2006년부터 비래동에 함께 '대전'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며 "가족기능강화"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미 관장님의 최고 기쁨은 어린이 재단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서로 나눔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대전중부교회에서도 풍부한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틈새로 따뜻한 기운이 닿을 수 있도록 애써 주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몽골 은혜교회 옆에는 고물상이 있다. 그 고물상의 세 아이들이 2년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은혜교회 성도 중 한 분이 돌보았던 인연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세 어린이의 이름은 바드마(BADAMAA), 아чит마(ACHITMAA), 자스마(TSASMAA)이다. 세 어린이의 기도가 간절하고 아름답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글 · 김은미 사모(박종환 강도사, 초등부 담당)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번 달부터 제 월급을 관리해 주고 적금을 넣어 주세요.” 우리는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귀던 3개월쯤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청혼을 받았다. 아무리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고 하지만 준비 없이 이러는 건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네”라고 대답했고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1년으로 세웠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직장을 다닌 지도 몇 달 되지 않았으며 갚아야 할 학자금도 많다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었다고 말하면 충분한 대답이 될 것이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처음 목회의 소명을 받아 기독교교육학과에 입학했다. 군중사병으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영문학과로 편입해서 사람들은 목회를 접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난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았을 때는 외면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지려니까 저러나 싶어 남편이 미웠고 사기결혼이라고 화도 내고 설득도 해봤다. 남편으로 인한 그 거룩한 부담감은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아 미리부터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그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그냥 이 손만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떠밀린 순종에 조금씩 평온해졌고 동상동몽을 꿈꾸게 되었다.

결혼 5년이 지난 2008년 여름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 두고 그 해 12월에 총신대학교 신

학대학원에 거짓말처럼 합격했다. 집사로 살던 내가 처음 사모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젠 정말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구나! 맘 굳게 먹고 정신 차리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자’ 떨면서 결심했던 나의 고백은 친정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한 통의 전화에 주님 손을 놓고 말았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친정아버지를 많이 기대고 살았음을 그때 깨달았다. 준비 없이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과 아이가 없어 혼자 병원에 다녔던 서러움 그리고 차마 말 할 수 없는 복잡한 분노들이 쉬지 않고 덮쳐왔다. 물론 남편이 큰 힘이 되었지만 주중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너무나 바빻기 때문에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 슬픔에 취하고 닦지 않은 눈물에 가려져 남편이 점점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졸업을 했고 강도사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미안한 세월이다.

지금까지 시련이 많았으니 다가올 시간들은 평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버리기로 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고 하늘에 소

망을 두고 살면 고난은 감당 할 수 있고 분명히 지나간다.” 쉽게 듣고 흘려보낸 이 말은 남편의 아픈 간증이였다. “주님이 뜻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길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내게 주신 찬양** 주님여 이 손을

●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 : 17)



정재규 선교사 파송



2011년 세계선교대회에서 조상용 목사님이 매년 교회 창립기념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선포 후 첫 해가 되는 올해 정재규 선교사님을 북한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이미 농업과 관련한 업무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중국 등지에서 선교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는 정재규 선교사님은 전도유망한 직장을 뒤로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며,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지역 복음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연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12월 9일 오후예배와 함께 추운 겨울에 어려운 겨울을 나는 이웃 주민과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20kg 햅쌀 250여 포를 예배 후 인근지역의 통장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직접 차로 배달하였다. 필그림카페와 사랑의 저금통으로 모은 약 1960만원의 기금은 사랑의 쌀 나누기, 급식 지원,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되어 작은 일부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교구 단합대회



가을을 맞아 교구별로 단합대회가 열렸다. 1교구(이석환 목사, 김영화 전도사)는 식사 모임을 통한 친목 도모, 2교구(변두성 목사, 하서운 전도사)는 순창고추장 단지와 강천산 단풍산행, 3교구(이승태 목사, 조정옥 전도사)는 안동 하회마을 관광을 통해서 교구별로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많은 교구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각 교구는 매년 봄, 여름 두 번씩 교구 가족이 함께하는 단합대회를 갖고 있다.

영어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외국인과 영어 예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한 영어예배가 시작되었다. 매 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1층 예배실에서 시작하는 예배는 가브리엘 목사님(우송대학교 교수 겸임)의 인도로 드려지고 있으며, 현재는 매 주일 15명 안팎의 외국인과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가브리엘 목사님의 독특한 방식의 열정적인 말씀 선포와 찬양 등을 통한 나눔이 더욱 영어예배를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찬양으로 드린 추수감사절 기념예배



추수감사절 기념예배가 찬양과 함께 진행 되었다. 11월 셋째 주 오후예배에 드린 감사예배는 아름다운 찬무로 무대를 열고, 예루살렘과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과 현악 연주, 독창, 남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진행되었다.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러진 기념예배에서 변두성 목사님은 '고통 중에 감사'의 제목으로 즐거움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날

모든 부서는 각자의 프로그램 대로 감사 행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성도들은 감사를 나누는 의미로 맛있는 떡을 나누었다.

2012 제직세미나



11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청주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조상용 목사님을 모시고 제직세미나가 열렸다. '제직의 힘'을 주제로 우리 교회 제직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제직의 본분과 실천해야 할 일, 사명, 중요성 등에 대해서 열정적인 말씀과 나눔이 있었으며, 제직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 새해를 준비하는 영적 준비를 하였다. 현재 우리 교회는 550여분의 제직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며, 올 해 새로 14분의 제직이 임명될 예정이다.



맛있는 먹거리, 김장 담그기



매 주일 점심시간 식탁에 오르는 가장 중요한 메뉴는 국수와 김치다. 국수는 매 주마다 끓여서 제공되지만 김치는 김장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 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 교회가 지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던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헵쌀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예년보다 적은 5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하게 되었다. 많은 성도님들의 봉사와 후원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게 담근 김장은 매 주 우리의 식탁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올 해도 지역에 계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필그림 카페 봉사를 통한 이익금 전액을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필그림은 봉사자 전원이 무료로 봉사하여 카페 운영에 가장 많은 지출 요인이 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약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사랑의 쌀 나누기, 장학금 지급 등에 쓰고 있다. 늘푸른 청년부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산동네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시름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저금통'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에서 모은 저금통을 기부하여 이웃돕기에 동참하였다.





박현정 기자

우연치 않은 기회를 통해서 가을이 올 때 시작 했는데 벌써 겨울을 맞이 하며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이라 많은 걱정으로 시작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즐거운 기억의 한 장면입니다. '함께'지라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겨울.. 모두에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문현 기자

글은 말에 비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랫동안 기록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디 저의 부족함은 잘 가려지고 다른 글들과 잘 어우러져서, '함께'지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에 온전히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마감기한을 꼭 지키는 신입기자가 되겠습니다.



노상미 기자

'8월의 나무'는 짙은 초록지붕 아래 울창한 그늘을 상징합니다. 어떤 모진 날씨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여름나무로 살고 싶은 노상미 집사입니다. 군인 남편을 만나 군인 교회를 섬기면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대전에서 새 삶의 터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은 설레입니다. 이곳 대전에서도 중부교회를 만나기 위해 여러 날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할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서툰 몸짓이지만 노력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알곡이 되길 희망합니다.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리드해주는 남편 전덕진(가양2동 예비군중대장),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순종해주는 아들 전수안(초등부)과 기쁨과 사랑으로 해맑은 웃음소리를 가진 딸 전수연(유년부)이 한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늘 감사합니다. 새 2013년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메인 멤버되기에 도전해 봅니다.

축복을 전하는 환이의 그림세상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환이는(7세. 유치부) 이억수 전도사님(사랑의 빛 교회), 남현주 사모(가양1목장)의 큰 아들이며 준(3살. 유아부)이를 예쁜 동생으로 두고 있다. 아빠 이억수 전도사님은 주바라기 찬양리더자로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다. 남상천 집사님과 김선희 권사님의 장녀인 남현주 사모는 결혼과 더불어 두 아이의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환이의 가정은 항상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유치부에서 예배 드릴 때도 환이는 누구보다 목껏껏 찬양을 하며 즐거워한다. 올해 전국 유치부 그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환이는 그림 또한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뛰어난 색감으로 표현할 줄 안다. 손도 야물어서 아이클레어 만들기도 곧잘 해내는 환이는 이억수전도사님과 남현주 사모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이다. 밝은 모습으로 친근한 인사를 건네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넘치는 축복이 세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편다은(초등부. 4)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3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십시오.